

교통사고처리특례법 5차시. 앞지르기방법 및 금지 위반 사고

학습목표

1. 국내법령에서 제시한 **앞지르기방법 및 금지 위반사고의 개념**을 설명할 수 있다.
2. 앞지르기방법 및 금지 위반사고의 사고유형과 판례분석을 통해 **처벌 관련 원인**을 분석할 수 있다.
3. 앞지르기방법 및 금지 위반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**안전가이드**를 설명할 수 있다.

1. 개요 - 앞지르기 방법 . 금지 위반 사고의 개념

1.1 앞지르기방법

: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. 다만, 자전거의 운전자에 한해서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뿐이고, 이 경우에도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 해야 한다.

1.2 앞지르기 금지 상황 및 금지 장소

- 앞지르기 금지 상황

- ①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
- ②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

- 앞지르기 금지 장소

- ① 교차로, ② 터널 안, ③ 다리 위, ④ 도로의 구부러진 곳,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

1.3 앞지르기방법 위반 사고의 일반적인 유형

- ① 진행 중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차로를 변경해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일어난 사고
- ② 고속도로에서 주행차로로 앞지르기 하다가 일어난 사고
- ③ 도로의 모퉁이 부근, 터널, 교량 위 등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일어난 사고
- ④ 지방경찰청이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에서 발생한 사고
- ⑤ 커브길 등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앞지르기 중 사고
- ⑥
- ⑦ 병진 시, 앞차의 앞지르기 시, 법 또는 경찰관의 앞지르기 금지지시 때 앞지르기 중 사고
- ⑧ 앞지르기 허용지점에서 앞지르기 중 사고
- ⑨ 2개 차로 사이로 앞지르기 중 사고
- ⑩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하던중 앞차의 좌회전으로 발생된 사고



⑪ 앞차의 우측차로 변경시 뒷차가 우측 앞지르기 중 발생한 사고

2. 대표 사고유형

(1) 우측으로 앞지르기하여 후방차량과 충돌 시 형사처벌 받는가?

- 앞지르기방법 위반에 해당된다. 차량을 앞지르기하기 위해서는 앞지르는 차량의 좌측 차로를 이용하도록 도로교통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.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앞지르기 금지장소가 아닌지 확인한 후 전방·후방의 좌측 및 우측 부분의 다른 차량의 진행여부를 확인 후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앞지르기 해야 한다.

(2)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차로를 급변경한 차량이 무리한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인명사고가 난 경우 사고처리방안은?

- 가해차량은 앞지르기방법을 위반한 것이다. 11대 중과실항목에 해당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고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묻지 않고,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. 경찰관에게 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즉시 사고접수를 하고, 물적 인적피해에 대하여는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통하여 직접 배상받을 수 있다.

3. 사례

(1) 도로에서 앞지르기 시비 결과 다른 차량에 고의로 충격을 가한 경우 엄한 처벌을 받는 이유는?

-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은 고의에 의한 가해행위에 해당하며,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에 대하여 모두 유죄가 해당된다. 자동차를 이용한 위협적인 보복 운전은 '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'과 같아 무겁게 처벌한다(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4도6206 판결).

(2)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장애물을 발견하고 차를 되돌리는 과정에서 전방차량과 충격시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?

- 앞차가 앞지르기를 하라고 양보를 해주었어도, 법에서 정한 앞지르기금지장소로 지정된 곳을 앞차의 신호로 변경할 수 없다.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장소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장소에서의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,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에서는 비록 도로교통법 제18조에 의하여 앞차가 진로를 양보하였다 하더라도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(대법원 2005.01.27. 선고 2004도8062 판



결).

4. Q&A

이중 앞지르기로 전방차량과 충격 시, 책임은?

- 이중 앞지르기를 시도한 차량의 운전자가 가해자이다.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거나,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앞차를 앞지르지 할 수 없다.

5. 안전가이드 Tip

- ① 앞지르기가 가능한 곳인지 확인한다.
- ② 앞쪽과 후방의 좌측 및 우측 등 다른 차량의 진행여부를 확인한다.
- ③ 앞지르기는 반드시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며, 안전한 간격을 유지하며 진행한다.
- ④ 앞지르기를 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하고, 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.
- ⑤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리한 앞지르기 보다는 앞차를 따라 서행하는 운전습관이 좋다.
- ⑥ 필요에 따라 경적을 울리거나 등화를 작동시켜 앞 차에게 주의를 환기시킨다.
- ⑦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주행 중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다.
- ⑧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앞지르는 이중앞지르기는 하지 않는다.
- ⑨ 앞차의 좌회전 시 앞지르기 하지 않는다.
- ⑩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기하지 않는다.
- ⑪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부근, 경사로의 정상부근, 급경사로의 내리막길, 다리 위나 터널 안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다.
- ⑫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지 않고 우선 양보한다.